

영천불교연합, 봉축법요 · 연등행렬

사부대중 3000명 동참

영천불교연합회(회장 태관)는 5월 7일 영천금호강변 분수광장에서 불기 2560년 '봉축법요식 및 연등행렬'을 거행했다. 행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을 비롯해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선본사 주지 범성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德染常淨)의 연꽃처럼 불자들이 스스로 지계를 청정케 하고 등을 밝혀 중생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사찰별 문화행사 부스와 축하공연에 이어 삼귀의, 봉행사, 축사, 법어, 발원문, 감사패 전달, 축가, 점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영천불교연합회는 선화여고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처연상정 손문철 대구지사장

"공양 올림으로 봉축 기념"

한일불교 여성부, 만발공양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공양 올리는 것으로 봉축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가 열렸다.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시민들을 위한 무차만발공양으로 축하했다.

백명숙 회장은 "봉축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부모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한 것을 드시고 함께 기뻐해주셔서 행복하다"며 소감을 말했다.

사무총장 황은 스님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심정으로 마련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봉축을 기념하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시민들에게 '茶禪一如'의 삶 보여준다

5월 7일, 제11회 부산다도문화축제 성료

부산차인연합회(회장 보혜)가 창립 27주년을 기념하며 부산 차인과 시민들을 위한 '제11회 부산다도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부산차인연합회는 부산 차인들의 화합을 이루며 다선일여의 삶과 차 정신을 전하고, 전통문화 계승 및 차문화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부산 가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하고 차 정신을 통한 포교에도 앞장서며 격조 높은 차 문화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월 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3층 301호에는 맑은 차향이 가득 퍼졌다. 차인들의 정갈한 다도 동작과 천연염색으로 곱게 물들인 한복, 다화가 각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았다. 이 자리에는 금당 차문화회, 김해문화원, 다연회, 숙우회, 소소차행법회 등 여러 다회에서 준비한 차 자리와 시화전, 다도구전, 전각전 등 다채로운 전시회가 마련됐다. 또한 다포그림 퍼포먼스, 차나무심기, 매듭공예 등 체험전도 준비돼 차를 접한 적이 없는 일반인도 편하게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부산차인연합회 27주년 기념해 차문화 · 정신 알리는 자리 마련 독좌시연 · 찾자리 등 공연 다채 2000여 사부대중 다도체험 즐겨

부산다도문화축제 개최식은 개회선언으로 문을 열어 회장 보혜 스님의 인사말, 부산차인문화상 및 공로상 시상, 내빈 축사,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문화상은 최혜봉 부산차인연합회 부회장, 공로상은 가장 경찰서다도문화대학장 정오 스님이 받았다.

이어진 무대시연에서는 △숙우회차행법 소속의 가야사 숙우회 △일본차 시연 △기장경찰서 다도문화대학 독좌시연 △금당차문화회 지회 명선 다도원 오심차림 찾자리 △한국다도대학원 부산 본원 정립집리 가루차 △김해 문화원(다향회) 일숙암 선비대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독좌를 시연한 참가자들은 기장경찰서 경찰청서 다도문화대학 소속이다. 경찰다운 절도 있는 다도 동작으로 큰 박



부산차인연합회(회장 보혜)가 창립 27주년을 기념하며 '제11회 부산다도문화축제'를 5월 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3층 301호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기장경찰서 경찰들의 독좌시연.

수를 받았다.

회장 보혜 스님은 "온화한 차의 성품을 배우는 것은 덕을 배우고 인간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순화시킴을 의미한다"며 "서로 화목하고 존경하고 깨끗한 차의 성품을 더욱 닦아가는 차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차인연합회 고문 정여 스님은 "오늘 열리는 다도문화축제는 이 지역 대표 전통문화축제이다"며 "차 문화 행사가 날로 발전하고 차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소박한 삶을 즐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차인연합회는 1989년 금당 최규용 선생, 원광 스님, 성파 스님 등 당시 다도계의 거목들이 모여 창립했다. 이후 한일 차문화교류 및 부산 시민을 위한 차 잔치 한마당, 총력사 신년행사, 부산 국제다도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차문화를 이끌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부산차인연합회 고문 정여 스님, 부산차인연합회장 보혜 스님, 기장다도문화대학장 정오 스님, 김대철 한국차문화회장, 윤상직 기장군 국회의원 당선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원효대사 一心 · 和靜 되새기다

원효종 · 분황사, 원효 1330주기 대재

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5월 6일 경주시 충효동 총무원에서 '원효보살 1330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하고, 원효 스님의 일심(一心)과 화쟁(和靜) 사상을 기렸다.

열반대재는 바라작법, 헌화, 봉행사, 추모사, 행장보고, 발원문, 법어 권공 및 영반, 분향, 중도대회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창해 스님, 총무원장 우석 스님, 종회의장 태일 스님, 자문위원장 금봉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오직 망념에 의해 일체 경계의 차별이 있으며,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지니 마음을 여의면 곧 육진의 경계가 없다"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설명한 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춘 것을 당부했다.

원로원장 창해 스님은 "원효보살님의 열반일을 맞아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되새기며 오늘날의 미혹과 죄악의 장막을



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5월 6일 경주시 충효동 총무원에서 '원효보살 1330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견어내고, 불국정도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하길 바란다"고 추모사를 했다.

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은 위대한 깨달음의 일체를 중생에게 되돌려겠다는 뜻으로 "한없이 깊고 넓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힘닿는 대로 보여주었으니 이 공덕 되돌려 법성같이 중생에 끝까지 이롭게 하리라"는 부처님의 의도행을 발원하는 법문을 했다.

한편 경주 분황사(주지 성요)는 5월 5일 '1330주기 원효성사 제향대제'를 경내에서 봉행했다. 분황사 주지 성요 스

님은 "원효성사 제향대제를 맞아 성사님의 숨결이 어린 분황사에서 다시 한번 위대한 사상과 높은 가르침을 되새기며, 미혹과 죄악의 장막을 견어내 불국정도를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원효성사의 대종교화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으로, 민중의 지침이 되어 온 일여평등 사상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원효성사 열반일을 맞아 배타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두의 염원이 성취되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열린불교아카데미, <선요> 법석 초대

5월 23일~9월 26일 간

열린불교아카데미(원장 김윤희)가 <선요>로 새롭게 문을 연다.

열린불교아카데미는 지난 4월 처음 문을 연 법석 <원각경>과 2기 <대승기신론>에 이어 세 번째 강의로 <선요>를 마련했다.

<선요>는 중국 남송 말기 선종을 진작시킨 고봉원묘선사의 법문집이다. 강의를 5월 23일~9월 26일 매주 월요일 7시이며,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원순 스님이다.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 송광사 · 불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조계종 편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 중이다.

특히 스님은 <금강경오가해> <대승기신론> <지문> <중론> <명주회요> <법보장경> 등 여러 경전 해설서를 통해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051) 244-0263

하성미 기자

재가자 위한 하안거 21일 입재

조계종 부산연합회, 흥법사서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재가자들을 위한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에 들어간다. 하안거 기간은 5월 21일~8월 17일이며 입재식은 5월 19일 오후 2시 흥법사에서 개최된다. 재가안거 수행프로그램에 참여한 불자들에게 안거증이 발행되며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수행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입재식은 1부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

해 108배에 이어 2부에서는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의 환영사, 청법가, 회장 수진 스님의 법문, 발원문, 축가 등이 진행된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재가불자들의 신심증장과 수행풍토 조성을 위해 재가안거 수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거기간 동안 실천 수행을 강조하고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재가불자들에게 맞는 수행법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PC칩 밀납양초 공장으로 장엄한 법당

사찰에 설치된 실외 양초 공양집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칩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이(SOY) 왁스 양초 new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 ① 그늘집이 거의 없습니다.
-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mm x 18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일본 직수입 향

- 심산자
- 란단향
- 후리지아
- 라일락향
- 밀감향

우 상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장경본)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곡길 131-14